

##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

최 선 희<sup>†</sup>

용우초등학교

김 종 미

진주교육대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KIPR)에 잠재되어 있는 요인구조를 밝히고 검증하여 이 검사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고 해석적 유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3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616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5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요인과 4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에서 요인 1은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비주장성(C5), 사회적 억제(C4), 냉담(C3), 과순응성(C6) 원형적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신감 결여와 사회적 위축”, 요인 2는 통제지배(C1), 자기중심성(C2) 원형적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격성과 타인조종”, 요인 3은 자기희생(C7), 과관여(C8), 과순응성(C6) 원형적도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잉배려”로 명명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모형은 4요인 모형보다 수집된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었고(RMSEA=.054), 적합도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CFI=.786), 모형의 간명성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CFI=.733).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원형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인접한 척도끼리는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 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8개의 원형적도를 망라하는 상위의 대표적인 요인척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 검사의 해석적 유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어 :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본 논문은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을 수정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선희, 용우초등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23번지  
Tel : 055-744-4987, E-mail : csh1009@hanmail.net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시대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우울, 불안, 좌절을 겪기도 하므로 인간관계는 한 개인의 적응과 성장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맺게 되는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바탕이 되고 그 후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또래들과 놀이를 통해 최초로 교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교우관계는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된다. 아동은 교우관계를 통하여 조망수용과 자기조절, 협력과 협상을 배우고(Parker, Rubin, Price, & DeRosier, 1995), 공격성과 성 역할을 학습하기도 하며(Hartup, 1983), 감정적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우정을 형성하기도 한다(Asher et al., 1993).

교우관계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우울, 폭력, 학업 부적응, 무단결석과 같은 부적응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이들의 교우관계를 확인하여 상담이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홍상환 등, 2009).

아동의 교우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까지 개발되어 있는 도구로는 교우관계 검사(고영본, 1981; 김형태, 1989), 교우관계 만족도 측정도구(Parker & Asher, 1993), 사회정서적 고립척도(허승희, 1993) 등을 비롯해서 아동의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교우관계 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아동

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홍상환 등, 2009)가 있다.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교우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핵심적인 교우관계문제를 밝히는 검사로서 원형척도(IIP-C)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의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친애와 지배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적 원형에 편차 T점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하위척도 간 상관을 보면, 원형척도의 특성상 교우관계원형에서 하나의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척도끼리는 상관이 높고 그 척도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았으며, 반대편 척도와는 상관이 가장 낮거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상환 등, 2009). 아동청소년 대인관계문제검사는 대인관계적 행동을 2차원적 의미공간에 나타냄으로써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는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으나, 원형모형(circumplex model)이므로 가까운 하위척도들 간 상관이 높아서 척도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별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고립이나 위축과 관련된 냉담(C3), 사회적 억제(C4), 비주장성(C5)척도의 경우 사회정서적 고립척도나 아동우울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다는 정혜원(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는 가까운 척도끼리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게 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상위의 교우관계문제를 밝힐 수 있는 요인척도를 구성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요인구조가 현재의 검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된다. 이러한 요인분석은 척도나 개념의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세분화하면 전체점수에 기여하는 하위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수검자에 적합한 해석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의 자료 특성에 맞는 요인추출 및 회전방식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하위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해보면 해석의미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사의 해석 과정에서 각 기본척도의 해석을 풍부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IIP-C)를 근거로 만든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경우 인접한 척도끼리 상관성이 높아 요인분석을 하면 원형척도 외에 요인척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요인별 하위문항의 해석을 통하여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교우관계의 핵심적인 문제를 더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석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홍상황 등, 2009)의 8개 임상척도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검증하여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해석적 유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표 1. 연구대상

	전체	4학년	5학년	6학년
남학생 수(%)	307(53.1%)	109(51.9%)	96(52.5%)	102(55.1%)
여학생 수(%)	271(46.9%)	101(48.1%)	87(47.5%)	83(44.9%)
평균나이(SD)	10.92(.86)	9.98(.28)	10.97(.27)	11.94(.31)

## 연구대상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소재 3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61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문항의 수가 5% 이상인 38명의 자료를 제외한 578명(남 307명, 여 27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학생 수와 나이는 <표 1>과 같다.

## 연구도구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교우관계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우관계문제를 밝히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인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홍상황 등, 2009)를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KIPR)는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의 척도구성과 문항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KIIP는 원판인 IIP의 문항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문항을 추가보완해서 구성한 것으로서, 대인관계적 행동을 친애과 통제라는 두 가지 기본 차원 또는 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원형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홍상황 등, 2009), 하위척도는 통제지배(C1), 자기중심성(C2), 냉담(C3),

사회적 억제(C4), 비주장성(C5), 과순응성(C6), 자기희생(C7), 과관여(C8)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개인이 교우관계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를 기술한 31개 문항과 교우관계에서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비롯되는 문제를 기술한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평정척도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 검사는 비밀관성이나 부정적 인상과 같은 수검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자료처리

수집한 자료를 SPSS 16.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Amo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요인을 밝히고 요인척도를 구성하였다. 기본 척도별로 문항을 요인분석하기 전에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표본적합도는 .94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표본적합도를 보였다. 문항 값에는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요인분석 모형을 선택하였다. 변수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변수의 공통분 추정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추정법, 축소상관행렬의 분해방법은 반복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 with iteration)을 사용하였다. 반복 주축분해를 통해 최초 요인구조를 추출한 후, 먼저 고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최소 고유값 기준보다 유용성 및 활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스크리 검사, 요인을 추가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가능한 최종요인의 수를 추정한 후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추정된 요인 수를 적용하여 회전시킨 후 구해진 요인계수행렬을 비교, 검토하여 1개의 요인을 뽑으려면 가능한 3개 이상의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요인구조가 가능한 1개 요인에 3개 이상의 문항을 포함하고, 문항의 요인 간 요인계수 차이가 분명하여 요인구조 해석이 용이한 결과를 보인 요인 수를 최종 요인수로 결정하였다. 최종요인 수를 지정한 후 상관행렬의 분해결과로 얻어진 요인구조인 기초구조에 대한 회전방법으로는 기초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이 예상될 경우에 권장되는 사각회전방법 중 하나인 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이순목, 1994).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구조를 검증해 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요인분석의 공통요인모형을 확인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한 요인구조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사용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 PCFI, RMSEA이다.

## 연구결과

###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대상 5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요인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eigenvalue 1.0을 기준으로 하면 12개의 요인이 산출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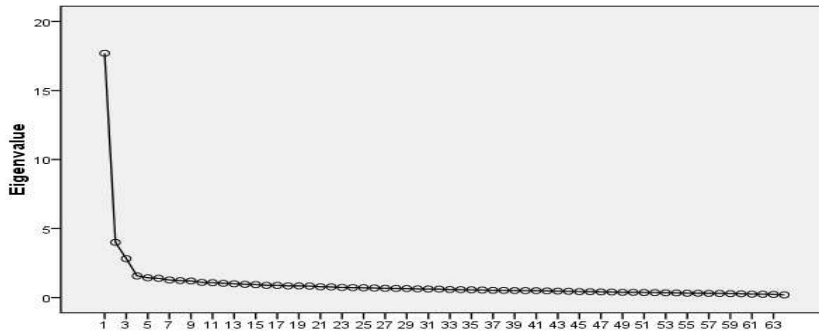


그림 1. Scree plot

1]의 eigenvalue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요인 수를 3~4개로 설정한 후 설명변량 및 해석가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4요인 구조의 경우, 3요인 구조에서 요인 하나를 추가하여 얻게 되는 설명변량이 1.53% 밖에 되지 않고, 요인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요인구조를 해석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3요인 구조의 경우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요인 간의 요인 부하량 차이가 명확하고 요인구조를 해석하기가 용이하여 3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 회전을 통하여 구한 3요인 모형과 4요인 모형의 요인 부하량은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3요인 모형의 경우 3개 요인의 전체 설명 변량은 35.35%로, 요인 1은 문항 7, 문항 27, 문항 26, 문항 63의 경우 두 개의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적어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문항 62의 경우 요인 부하량이 낮으나 내용상 요인 3에 적합한 문항이라 해석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하였다. 3요인 모형의 요인 1은 설명 변량이 26.68%로,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다’, ‘내 요구가 정당하다 해도 다

른 아이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등의 비주장성, 사회적 위축에 관한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신감 결여와 사회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1의 요인 부하량은 .740~.312의 범위였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5였다. 요인 2는 설명 변량이 5.29%로, ‘다른 아이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운다’, ‘생각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과 너무 자주 다툰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격성과 타인조종”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요인 부하량은 .653~.300의 범위였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8이었다. 요인 3은 설명 변량이 3.38%로,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다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잘 해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요인을 “과잉배려”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의 요인 부하량은 문항 62를 제외하고는 .516~.345였는데, 문항 62의 경우는 요인 부하량이 .274이나 문항의 내용이 요인 3에 적합하여 포함하기로 하였다. 요인 3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30이었다.

3요인 모형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원형척도와 비교하여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

표 2. 3요인 모형의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0	<b>.740</b>	-.148	.029
20	<b>.723</b>	-.175	.123
11	<b>.720</b>	-.038	.069
31	<b>.712</b>	-.036	.146
14	<b>.695</b>	-.092	-.028
5	<b>.682</b>	-.095	.018
25	<b>.665</b>	-.055	.041
28	<b>.660</b>	.057	.042
22	<b>.641</b>	.071	-.020
19	<b>.626</b>	.071	.060
4	<b>.599</b>	.087	-.130
21	<b>.579</b>	-.120	.229
29	<b>.566</b>	.089	.115
9	<b>.528</b>	.085	-.119
6	<b>.523</b>	-.243	.332
15	<b>.520</b>	-.167	.229
40	<b>.519</b>	.177	-.055
13	<b>.475</b>	.045	.090
18	<b>.450</b>	.246	-.122
12	<b>.443</b>	.105	.023
17	<b>.440</b>	.163	-.083
36	<b>.426</b>	.290	-.034
24	<b>.424</b>	.107	-.021
48	<b>.424</b>	.097	.176
3	<b>.420</b>	.066	.039
49	<b>.419</b>	.045	.287
2	<b>.413</b>	.260	-.240
60	<b>.388</b>	.241	.076
23	<b>.379</b>	.184	-.080
7	<b>.372</b>	-.110	<b>.348</b>
27	<b>.364</b>	<b>.352</b>	-.244
54	<b>.316</b>	.151	.241
1	<b>.312</b>	.213	-.087
32	.010	<b>.653</b>	-.079
53	.025	<b>.642</b>	-.051
52	-.145	<b>.620</b>	.059
35	-.114	<b>.610</b>	.067
46	.087	<b>.602</b>	-.106
59	.178	<b>.538</b>	-.023
43	.185	<b>.523</b>	-.064
47	.162	<b>.508</b>	.052
45	.009	<b>.467</b>	.078
58	.045	<b>.456</b>	.361
51	.107	<b>.435</b>	.244
64	-.007	<b>.430</b>	.242
39	.044	<b>.424</b>	.182
42	.184	<b>.422</b>	.132
8	.148	<b>.374</b>	-.022
63	.125	<b>.367</b>	<b>.353</b>
44	.291	<b>.340</b>	.256
41	.095	<b>.300</b>	.215
50	.229	.136	<b>.516</b>
37	.244	.123	<b>.507</b>
56	-.045	.111	<b>.494</b>
30	.349	-.131	<b>.450</b>
61	.021	.208	<b>.438</b>
57	-.026	.356	<b>.422</b>
33	.090	.214	<b>.420</b>
55	.305	-.021	<b>.395</b>
26	<b>.359</b>	-.061	<b>.391</b>
38	.244	.226	<b>.363</b>
34	.036	.269	<b>.358</b>
16	.004	-.041	<b>.345</b>
62	.178	.223	<b>.274</b>

표 3. 4요인 모형의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20	<b>.764</b>	-.142	.033	-.110
14	<b>.755</b>	-.063	-.145	-.107
10	<b>.750</b>	-.117	-.001	-.022
31	<b>.736</b>	.001	.069	-.088
11	<b>.702</b>	-.006	.075	.022
25	<b>.665</b>	-.026	.019	-.009
5	<b>.647</b>	-.069	.065	.072
21	<b>.588</b>	-.091	.188	-.072
28	<b>.575</b>	.082	.169	.175
49	<b>.562</b>	.081	-.010	-.386
29	<b>.561</b>	.119	.083	-.026
4	<b>.559</b>	.110	-.079	.113
19	<b>.556</b>	.097	.156	.136
22	<b>.555</b>	.094	.112	.193
40	<b>.533</b>	.205	-.116	-.026
6	<b>.496</b>	-.220	.367	-.014
15	<b>.487</b>	-.145	.273	.021
13	<b>.480</b>	.071	.050	-.037
48	<b>.439</b>	.125	.108	-.083
12	<b>.431</b>	.128	.015	.015
60	<b>.428</b>	.271	-.046	-.120
36	<b>.415</b>	.316	-.061	.016
55	<b>.411</b>	.010	.164	-.335
9	<b>.407</b>	.097	.092	.304
54	<b>.394</b>	.182	.051	-.240
24	<b>.383</b>	.125	.030	.090
18	<b>.374</b>	.264	-.017	.184
17	<b>.350</b>	.178	.058	.213
23	<b>.341</b>	.200	-.037	.094
2	<b>.330</b>	.272	-.112	.231
3	<b>.291</b>	.076	.262	.280
1	<b>.261</b>	<b>.227</b>	-.020	.124
32	-.036	<b>.665</b>	-.059	.090
53	.017	<b>.659</b>	-.105	-.002
52	-.185	<b>.629</b>	.066	.043
35	-.122	<b>.623</b>	.013	-.030
46	.059	<b>.616</b>	-.116	.058
59	.128	<b>.555</b>	.004	.088
43	.150	<b>.540</b>	-.058	.066
47	.180	<b>.533</b>	-.049	-.078
45	-.006	<b>.481</b>	.049	-.009
58	.048	<b>.480</b>	.278	-.118
51	.103	<b>.458</b>	.182	-.072
64	.030	<b>.452</b>	.107	-.164
42	.183	<b>.445</b>	.069	-.055
39	.024	<b>.441</b>	.158	-.022
63	.169	<b>.397</b>	.198	-.205
8	.048	<b>.384</b>	.116	.204
44	<b>.326</b>	<b>.373</b>	.122	-.160
27	.285	<b>.364</b>	-.133	.216
41	.141	<b>.323</b>	.074	-.172
62	<b>.215</b>	<b>.248</b>	.152	-.163
56	-.090	.122	<b>.530</b>	-.043
7	.277	-.100	<b>.508</b>	.125
26	.292	-.044	<b>.486</b>	.048
30	.316	-.110	<b>.483</b>	-.038
16	-.058	-.038	<b>.441</b>	.042
57	-.042	<b>.375</b>	<b>.381</b>	-.090
61	.029	.228	.368	<b>-.137</b>
33	.089	.236	.363	<b>-.115</b>
50	.286	.169	.347	<b>-.264</b>
34	.011	.286	.346	<b>-.049</b>
37	.303	.156	.337	<b>-.264</b>
38	.240	.253	.310	<b>-.094</b>

보면, 요인1은 원형척도가 비주장성(C5), 과순  
 응성(C6), 사회적 억제(C4), 냉담(C3)의 문항들  
 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 2의 경우는 통제지배  
 (C1), 자기중심성(C2)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일부 과관여(C8), 자기희생(C7)의 문항이  
 있었다. 요인 3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탁을 거

절하기가 어렵다’는 문항 30을 제외하고는 자  
 기희생(C7), 과관여(C8), 과순응성(C6)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어 원형척도에서 인접한 척도  
 끼리 같은 요인으로 묶여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4요인 모형에서 문항 1, 문항 44, 문항 62,

표 4. 3요인 모형에 따른 문항구성과 원형척도

요인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원형척도
요인 1 : 자신감결여/사회적 위축		
	10.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비주장성(C5)
	20.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11. 내 요구가 정당하다해도 다른 아이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31.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14. 친구들과 사이에서 리더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5.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25.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해지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28.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냉담(C3)
	22. 다른 아이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19. 내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4.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21. 다른 아이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29.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편하게 행동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9.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냉담(C3)
	6. 다른 아이에게 “싫어” 또는 “안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15. 화가 난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40.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냉담(C3)
	13. 내가 먼저 다른 아이에게 만나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18. 다른 아이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냉담(C3)
	12. 다른 아이에게 선물을 하기가 어렵다.	냉담(C3)
	17. 다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36. 다른 아이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	냉담(C3)
	24. 처음 만나는 아이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48.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한다.	사회적 억제(C4)
	3.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냉담(C3)
	49.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과순응성(C6)
	2. 다른 아이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 주기가 어렵다.	통제지배(C1)
	60.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지나치게 회피한다.	사회적 억제(C4)
	23. 한 번 싸우거나 미워한 친구와는 다시 친해지기가 어렵다.	냉담(C3)
	54. 내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보잘 것 없다고 너무 자주 느낀다.	사회적 억제(C4)
	1. 다른 아이를 쉽게 믿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표 4. 3요인 모형에 따른 문항구성과 원형척도 (계속)

요인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원형척도
요인 2 : 공격성/타인 조종		
	32. 다른 아이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운다.	통제지배(C1)
	53.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너무 무시한다.	자기중심성(C2)
	52. 다른 아이의 잘못된 점을 지나치게 말한다.	통제지배(C1)
	35. 너무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다.	통제지배(C1)
	46. 생각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과 너무 자주 다툰다.	통제지배(C1)
	59. 나는 친구들 일보다 너무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중심성(C2)
	43.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너무 쉽게 짜증을 낸다.	자기중심성(C2)
	47. 다른 아이들을 지나치게 의심한다.	자기중심성(C2)
	45. 다른 아이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과관여(C8)
	58.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속상해 한다.	통제지배(C1)
	51. 다른 아이의 일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싶어 한다.	과관여(C8)
	64. 친한 친구들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	과관여(C8)
	39. 다른 아이들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통제지배(C1)
	42. 다른 아이들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한다.	통제지배(C1)
	8. 다른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과관여(C8)
	44. 다른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자기희생(C7)
	41. 다른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과관여(C8)
요인 3 : 과잉배려		
	50.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자기희생(C7)
	37.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자기희생(C7)
	56. 다른 아이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보면 너무 도와주려고 한다.	자기희생(C7)
	30.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61. 다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잘 해 준다.	과순응성(C6)
	57. 다른 아이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과관여(C8)
	33. 친한 친구에게 너무 잘해 주려고 해서 힘들 때가 많다.	자기희생(C7)
	55. 다른 아이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과순응성(C6)
	38.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과관여(C8)
	34. 친구들로부터 항상 지나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	과관여(C8)
	16.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	자기희생(C7)
	62. 다른 아이들에게 생긴 문제를 지나치게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희생(C7)

문항 57은 두 개의 요인에서 요인 부하량이 비슷하여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4요인 모형을 살펴보면 요인 1의 경우, 문항 55인 ‘다른 아이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외에는 거의 3모형 요인의 요인 1과 일치한다. 문항의 내용 역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는 내용

과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회적 위축에 관한 내용이므로 요인명을 3요인과 마찬가지로 “자신감결여와 사회적 위축”으로 명명하였다. 문항 3은 요인 부하량이 .291로 낮은 편이나 문항의 내용이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다’로 자신감 결여와 사회적



위축의 내용으로 적절하여 요인 1로 구분하였다. 요인 1의 요인 부하량은 .764~.291이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9였다. 요인 2의 경우도 3요인 모형에서의 요인 2의 문항과 거의 일치한다. 요인명은 3요인과 마찬가지로 “공격성과 타인 조종”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부하량은 .665~.384이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82였다. 4요인 모형에서는 3요인 모형에서 요인 3이 요인 3과 요인 4로 세분화 되었다. 요인 3은 ‘다른 아이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보면 너무 도와주려고 한다’, ‘가까운 친구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등의 문

표 5. 4요인 모형에 따른 문항구성과 원형척도

요인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원형척도
요인 1 : 자신감결여/사회적 위축		
	20. 주장이 강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14. 친구들과 사이에서 리더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10. 내 주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비주장성(C5)
	31.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11. 내 요구가 정당하다해도 다른 아이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25.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해지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5.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21. 다른 아이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28.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냉담(C3)
	49.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과순응성(C6)
	29.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편하게 행동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4. 여러 아이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19. 내 감정을 털어놓고 말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22. 다른 아이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40. 다른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냉담(C3)
	6. 다른 아이에게 “싫어” 또는 “안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15. 화가 난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13. 내가 먼저 다른 아이에게 만나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48.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한다.	사회적 억제(C4)
	12. 다른 아이에게 선물을 하기가 어렵다.	냉담(C3)
	60.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지나치게 회피한다.	사회적 억제(C4)
	36. 다른 아이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	냉담(C3)
	55. 다른 아이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과순응성(C6)
	9.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냉담(C3)
	54. 내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보잘 것 없다고 너무 자주 느낀다.	사회적 억제(C4)
	24. 처음 만나는 아이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억제(C4)
	18. 다른 아이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냉담(C3)
	17. 다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23. 한 번 싸우거나 미워한 친구와는 다시 친해지기가 어렵다.	냉담(C3)
	2. 다른 아이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해 주기가 어렵다.	통제지배(C1)
	3.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냉담(C3)

표 5. 4요인 모형에 따른 문항구성과 원형척도

(계속)

요인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교우관계 문제검사의 원형척도
요인 2 : 공격성/타인 조종		
	32. 다른 아이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운다.	통제지배(C1)
	53.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너무 무시한다.	자기중심성(C2)
	52. 다른 아이의 잘못된 점을 지나치게 말한다.	통제지배(C1)
	35. 너무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다.	통제지배(C1)
	46. 생각이 달라서 다른 아이들과 너무 자주 다툰다.	통제지배(C1)
	59. 나는 친구들 일보다 너무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중심성(C2)
	43.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아이에게 너무 쉽게 짜증을 낸다.	자기중심성(C2)
	47. 다른 아이들을 지나치게 의심한다.	자기중심성(C2)
	45. 다른 아이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과관여(C8)
	58.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속상해 한다	통제지배(C1)
	51. 다른 아이의 일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싶어 한다.	과관여(C8)
	64. 친한 친구들의 개인적인 일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	과관여(C8)
	42. 다른 아이들을 지나치게 시기하고 질투한다.	통제지배(C1)
	39. 다른 아이들을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통제지배(C1)
	63. 친구들과의 정이나 의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손해 보는 일이 많다.	비주장성(C5)
	8. 다른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과관여(C8)
	27. 다른 아이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자기중심성(C2)
	41. 다른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과관여(C8)
요인 3 : 과은정성		
	56. 다른 아이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보면 너무 도와주려고 한다.	자기희생(C7)
	7. 가까운 친구에게 화내기가 어렵다.	자기희생(C7)
	26. 싫어하는 친구라도 그만 만나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과순응성(C6)
	30.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비주장성(C5)
	16.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	자기희생(C7)
요인 4 : 무심함(요인 부하량)		
	61. 다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잘 해 준다.(-.137)	과순응성(C6)
	33. 친한 친구에게 너무 잘해 주려고 해서 힘들 때가 많다.(-.115)	자기희생(C7)
	50.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264)	자기희생(C7)
	34. 친구들로부터 항상 지나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049)	과관여(C8)
	37. 다른 아이의 기분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애쓴다.(-.264)	자기희생(C7)
	38.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094)	과관여(C8)

항으로 교우관계에서 거절하거나 화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명은 “과은정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부하량은 .665~.323이었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01이었다. 요인 4는 ‘다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잘 해 준다’, ‘친한 친구에게 너무 잘해 주려고 해서 힘들 때가 많다’,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등의

문항으로 교우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잘 해 주려는 내용이다. 요인 4는 약한 부적 상관에 있는 문항들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항 3인 ‘다른 아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어렵다’와는 .280, 문항 50인 “다른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이므로 요인명을 “무심함”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049~-.264이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lpha)는 .789였다. 최종 요인구조에서 확인된 3요인 모형에서 요인 1은 교우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생기는 교우관계문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감결여와 사회적 위축”, 요인 2는 공격성과 자신의 뜻대로 타인을 조종하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격성과 타인 조종”, 요인 3은 지나치게 다른 아동의 감정을 맞추려 애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잉배려”로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과 4요인

적합도지수	RMSEA	CFI	PCFI
3요인 모형	.054	.786	.733
4요인 모형	.057	.762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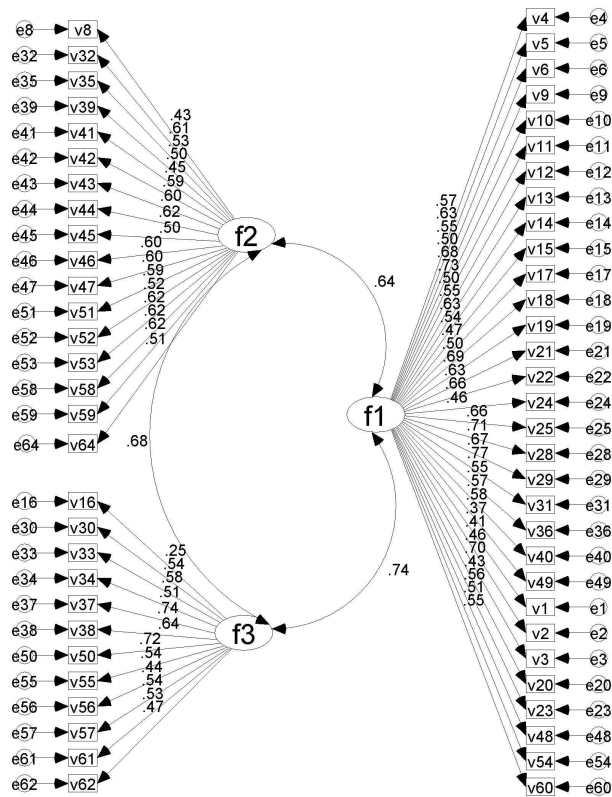


그림 2.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표준화 경로계수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구조의 적합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한 3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한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

형의 적합도 지수는 Byrne(2001)과 Kline(2005)가 우수한 적합도 지수라고 추천한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 (comparative fit index), 간결 적합도 지수인 PCFI(parsimony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RMSEA \leq .10$ ,  $CFI \geq .90$  그리고  $PCFI \geq .70$ 이면 수용할만한 적합도로 간주된다(Ruiz & Eden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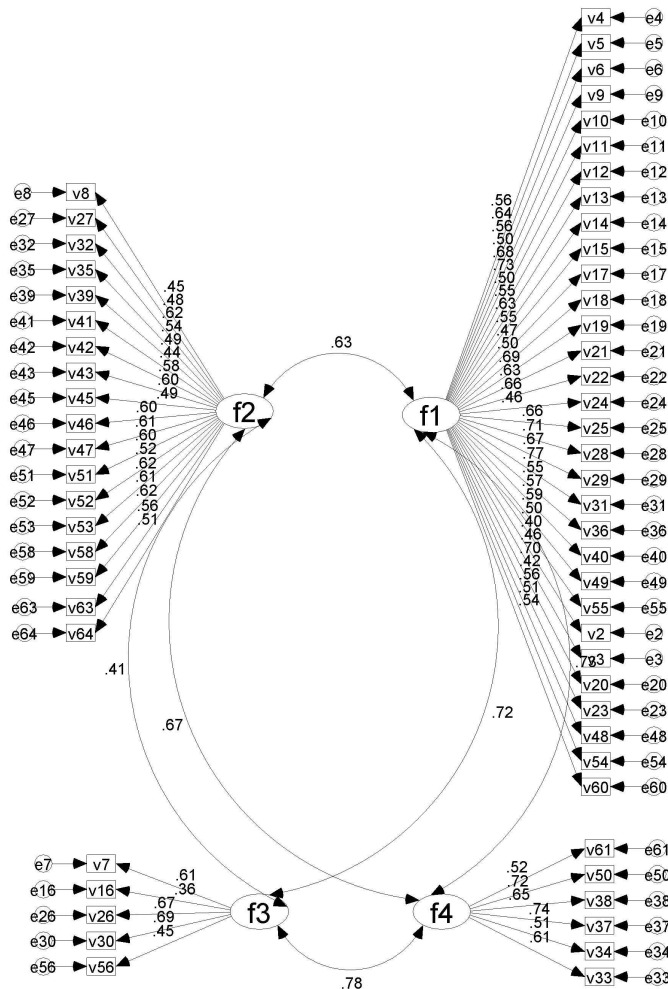


그림 3. 4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표준화 경로계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제시되어 있는 <표 6>을 보면,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는 3요인 모형에서는 .054, 4요인 모형에서는 .057로 나타나서 4요인 모형에 비하여 3요인 모형이

약간 더 적합한 수준으로 해석 가능하다.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는 3요인모형에서는 .786, 4요인 모형에서는 .762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며, 역시 4요인 모형에 비하여 3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이라 해석된다. 간결 적합도 지수인 PCFI의 경우도 3요인 모형은 .733, 4요인 모형은 .710으로 3요인 모형이 4요인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3요인 모형이 4요인 모형에 비하여 수집된 자료를 더 잘 반영하고(RMSEA=.054),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수준이며(CFI=.786), 모형의 간명성 또한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PCFI=.733). 3요인 모형과 4요인 모형 중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된 최종 모형인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4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 논 의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정, 지지, 친밀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거부, 미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도 한다. 교우관계에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우울, 폭력, 학업 부적응, 무단결석과 같은 부적응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

적, 정서적 발달을 돕고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교우관계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홍상황 등, 2009).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홍상황 등, 2009)는 아동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 김영환 등, 2002)의 원형척도의 문항과 구성방식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대인관계 원형모형은 성격특질이나 정서가 개념적, 수학적으로 원형으로 배열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우호-냉담의 친애와 지배-순종의 통제 축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관련성이 높은 대인관계행동을 원형(circumplex) 상에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원형척도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는 하나의 하위척도를 중심으로 인접한 척도끼리는 상관이 높고 그 척도에서 멀어질수록 상관이 낮으며 반대편 척도와는 상관이 가장 낮거나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심리검사에서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을 근거로 방대한 자료를 보다 작은 기술적 단위나 차원으로 축소하여 동질적인 척도를 구성하거나 이미 개발된 검사의 내적인 구조 또는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다(홍상황, 한태희, 2010).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에 잠재되어 있는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원형척도를 포괄하는 상위의 교우관계문제 영역을 확인하여 이 검사의 해석적 유용성을 높이고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형척도에 의한 해석뿐만 아니라 요인점수를 활용하

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우관계문제 요인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별하고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검사결과를 폭 넓게 해석할 수 있기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지역 3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578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통해 검증한 결과 .94로 높은 수준의 표본적합도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스크리 도표의 고유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3요인 모형과 4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분명하고 요인구조를 해석하기 용이한 3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에서, 요인 1은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하위척도 중 비주장성(C5), 사회적 억제(C4), 냉담(C3), 과순응성(C6)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신감 결여와 사회적 위축”, 요인 2는 통제지배(C1), 자기중심성(C2)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격성과 타인 조종”, 요인 3은 자기희생(C7), 과관여(C8), 과순응성(C6)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잉배려”로 명명하였다. 요인 1, 2, 3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35, .878, .830이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확인하여 이 검사의 원형속성을 재차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대인관계 원형모형에서는 한 척도를 기준으로 근접한 척도끼리는 상관이 높고 멀어지거나 반대 편에 있는 척도와는 상관이 낮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상관이 높은 원형척도들은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청소년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원형속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원형척도를 포괄하는 보다 대표적이고 상위의 교우관계문제를 밝힐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기존의 원형척도 점수를 사용한 해석뿐만 아니라 요인점수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검사의 해석적 유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인관계행동 원형모형에서 서로 직교하는 두 행동은 영(zero correlation)의 상관을 가진다는 이론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에 냉담(C3)과 비주장성(C5)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혜원(2007)의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가 친애와 통제라는 두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을 각도로 변환하여 보았을 때 원형 상으로는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하위척도들의 경험적 각도와 이론적 각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척도가 이론적 척도와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였으므로 엄밀하게 비교했을 때는 이론적 위치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서로 직교하는 두 행동은 이론상 영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냉담(C3)과 비주장성(C5)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여지는 것을 원형척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추출된 3개 요인의 전체 설명 변량은 35.35%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총 설명변량이 낮은 것은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는 대인관계적 행동과 특성은 친애와 통제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축 또는 차원을 중심으로 형성

된 원형에 배열할 수 있다는 Leary(1957)의 원형모형(circumplex model)의 관점에 따라 8개의 교우관계 유형을 원형으로 배열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문항들을 배치한 유형검사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 개발 과정에서는 원형모형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8개의 교우관계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교우관계 유형을 대표하는 8개 문항들의 합산점수로서 요인분석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64개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 문항들 속에 공통으로 내재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교우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변량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이 교우관계문제검사에 응답할 때 내재된 3가지 요인에 의해 문항반응이 일어나는 비율은 35.35% 정도이고, 나머지 65% 정도는 다른 요소, 이를테면 검사대상자들의 지능, 어휘력, 교우관계 기술 등의 여러 가지 속성이나 오차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총 설명변량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3요인과 4요인 간의 상관을 가정한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Byrne(2001)과 Kline(2005)에 의해 우수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된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간결 적합도 지수인 PCFI(parsimony 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3요인 모형이 4요인 모형에 비하여 수집된 자료를 잘 반영하고(RMSEA=.054),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을 수준이고(CFI=.786), 모형의 간명성 또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PCFI=.733).

본 연구는 경상남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서 학력, 지역 등이 다양하게 반영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의 대상은 초등학생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우관계문제검사에 응답하는 내용이 초등학생과는 다를 것이고, 문항을 해석하는 지적 능력과 어휘력도 초등학생에 비하여 높을 것이므로 요인분석의 총 설명변량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교우관계문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정혜원(2007)의 연구 결과 성별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8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자기중심성과 과순응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중에서 자기중심성은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더 높았고 이와는 달리 과순응성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학년을 단변량분석한 결과 통제지배, 자기희생 척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남녀 아동 간, 학년 간에 교우관계 패턴이 다르고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교우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감 또한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밝혀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고영본 (1981). *고등학교 학생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혜원 (2007). *아동용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7.

허승희 (1993).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사회 정서적 고립척도 개발. *초등교육연구*, 7(1), 19-32.

홍상황, 김종미, 안이환, 황순택, 유현실, 정혜원 (2009). *아동·청소년 교우관계 문제검사*.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홍상황, 한태희 (2010). 한국판 성격평가질문지 (PAI) 하위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95-905.

Asendorf, J. B. (1993). Beyond temperament: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265-289). Hillsdale, NJ: Erlbaum.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A function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personality evaluation*. New York: Ronald Press.

Parker, J. G., & Asher, S. R. (1993). Beyond group acceptance: Friendship adjustment and friendship quality as distinct dimensions of children's peer adjustment. In D. Perman & W. H.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Vol. 4, pp.261-294). London: Kingsley.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M., & DeRosier, M. E. (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Risk, disorder, and adaptation*(pp.69-161). New York, NY: Wiley.

- ◆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11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1년 9월 15일
- ◆ 게재 승인 일: 2011년 9월 22일



## Factor Structures of the 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

**Sun-Hee Choi**

Yongwoo Elementary  
School

**Jong-Mee Kim**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g-Hwang Hong**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and confirm the factor structure inherent in the 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KIPR; Sang-Hwang Hong, et al., 2009)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pretive usefulness of the test. For this purpose, the inventory was administered to the total of 616 children in the fourth through sixth grades in thre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Gyungnam area, and the data from 578 of them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3-factor and 4-factor models, the 3-factor model was found to be more appropriate. In the 3-factor model, the factor 1 is named “Lack of Self-Confidence and Social Withdrawal” as it consists of such circumplex scale items as Non-Assertiveness (C5), Social Avoidance (C4), the Cold (C3), and Too Submissive (C6). The factor 2 is named “Too Aggressive and Controlling” and consists of items Too Controlling (C1) and Hard to be Supportive (C2). The factor 3 is named “Too Caring” and consists of items Too Responsible (C7), Over Involvement (C8), and Too Submissive (C6). Second,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3-factor model, in comparison to the 4-factor model, was found to better reflect the collected data(RMSEA=.054), its goodness of fit was not satisfactory but within the acceptable range(CFI=.786), and its power of simplicity and clarity was also adequate(PCFI=.733). In the current study, through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f scores from the 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 circumplex scales, scales within the peer relationship circumplex model that are near each other and are highly correlated were confirmed to be grouped together as same factors. I believe the main merit of the study lies in the above result having provided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forming the superordinate and representative scale that encompasses the eight circumplex scales, which enhances the test's interpretive usefulness.

*Key words : 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